2012 HSC - Heritage Korean
Band 6H
Sample 1 Question 7

Question Number: 7

얼마전 나는 신문에서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꼭 K-pop에 대해 알아야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담긴 글을 읽었다. 나는 그 글쓴이의 의견과 동의한다. K-pop, 이 한국의 팝문화는, 한국 문화에 속해있지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뿌리이자 역사인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해야 한다. K-pop은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의 많은 젊은 이들을 사로 잡아 왔다. 그들은 화려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헤리티지 하셍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외국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에 우리는 그 곡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노래의 작곡·작사가 어떠한 의이로 그 곡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시대 흥중을 담아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K-pop을 따라 부른다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발표한 싸이의 곡 "강남 스타일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가 "오빤 강남 스타일!"을 외치며 열중을 주지만, 그들은 "나는 동 위에 뛰는 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채 따라한다. 강남의 퇴폐적인 물질주의 문화를 담은 곡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K-pop을 안 좋은 나라들, 강남 스타일 따라 부르는 많은 팬들 -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다라고 본다. 한국의 문화는 깊은 뿌리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가 외치는 "강남"이라는 곳은 한국의 역사, 전쟁, 과 나라의 아픔을 담은 곳이다. 즉, K-pop을 아는 것은 한국의 문화의 작은 부위인 한국의 팝문화를 즐기는 것이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K-pop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을 따라하여

그들도 한국 사람 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illegible]~~ 그들은 성형 수술을 하고, 연예인들의 의복과 말투를 따라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이 ~~[illegible]~~ 열광하는 완벽한 외모를 소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여러 인종과 연령, 다양한 직업과 개성있는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곳이다. ~~[illegible]~~ 그렇기 때문에 ~~[illegible]~~ 외적인 것들을 따라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팝 문화를 즐길 수는 있어도, 한국의 ~~[illegible]~~ 명절, 강강수월래, 떡국 - 이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노래 가사를 따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기사를 읽는 것도 부족하다 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참 전통과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을 해야하고 한국에서 만 ~~[illegible]~~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한국 사회의 ~~[illegible]~~ 특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강남 스타일" 처럼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illegible]~~ 아름다운 ~~[illegible]~~ 강남과 여의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K-pop을 알아야만 한국의 문화를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illegible]~~ 이것이 헤리티지 한국 학생인 나의 의견이다.

End of paper

나는 헤리티지 학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다. ~~[illegible]~~ 외국아이들이 "강남 스타일"을 ~~[illegible]~~ 외치며, 한국 유행 ~~[illegible]~~ 때 신도 입는 것을 봤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나또한 에민 2세로서,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illegible]~~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도, 한국의 설 처럼 따뜻하고 ~~[illegible]~~ 열기있는 분위기를 누리지 못한다.